제식훈련 고문관

(마21:42~46)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식훈련 고문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식훈련 고문관.
고문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카운셀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문해올 때에, 전문가로서의 자기의견이나 앞선 경험자로서의 자기 의견을 말해주는 직책에 있는 관리인을 우리가 고문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대 고문관이라는 게 이런 의미의 고문관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 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국 군정시절과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게 되면서, 한국 군대 안으로 미군고문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배치를 해 둬요.
근데 그 고문관들이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문화나 한국 실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굼뜨고 어리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요러한 점을 악용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군대로 배치돼온 미국 고문관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군대에 배치된 미국 고문관들의 말이 서툴고 행동이 굼뜰 수밖에 없고 실정에 어두워서 어리숙한 행동을 하게 된 데에서부터 군대 안에 고문관이라는 별칭이 생기게 됩니다.
군대 안에서의 행동이 굼뜨고 어리석은 자들, 사방에서 매 순간마다 신속하고 절도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군대 안에서 다른 군인들과 거슬리고, 부딪치고 하는 자들을 고문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문관들이 군대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제식훈련할 때라 이겁니다.
천 명의 대대병력이 모여 가지고 제식훈련을 합니다.
앞에서 조교가, 장교가 구령을 내립니다. '좌향~좌'하면 혼자 우향우 합니다, '앞으로~가' 하면 뒤로 가고, '제자리에~서' 하면 계속 가고 그래서 사방에 부딪칩니다.
그게 너무 고쳐지지 않을 때에는 기합을 주고 매를 때리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열외를 시켜버리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상급부대의 사령관이 와 가지고, 그 제식훈련 열병분열을 참관하게 될 때에, 이 고문관 사병 때문에 전체 제식훈련 열병분열이 다 망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열외를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유명한 본문이에요.
시편118편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그리고 당신 자신이 지금 유대사회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그 형편을 그대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마치 군대의 고문관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부딪칠 수밖에 없고 거스를 수밖에 없는 위치, 도대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의 이유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보탑을 쌓고 석가탑을 쌓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는 것처럼 옛날에 돌을 쌓아서 건축을 할 때에, 이 돌과 돌이 물론 석수가 정을 들고

다듬어서 쌓기도 합니다마는, 도저히 다듬어도 옆의 돌, 맞닿아 이어질 돌, 쌓아 올려 질 돌들과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돌일 경우에 버립니다.
근데 도저히 그 여러 개가 쌓아지는 돌들과는 잘 들어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해서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정초식 할 때, 예식의 의미가 큽니다.
날자나 적고 뭐 이런 거 합니다마는, 그 당시 돌을 쌓아서 집을 지을 때에 이 머릿돌의 의미는 수천수만 개의 돌이 쌓여져서 한 건물이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돌이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머릿돌에 맞춰져서 쌓아올려 지는 겁니다.

천 번째 만 번째 쌓아 올려 진 돌도 결국은 모든 돌이 이 돌에 연이어서 맞추어져 가기 때문에 이 돌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머릿돌과 무관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 집을 지을 때 돌이 만 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만 개의 머릿돌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돌까지 다~ 이 머릿돌에 맞추어져서 쌓아 올려 진다는 겁니다.
이쪽 건물을 지을 때에 건축자들이 잘 안 맞는 돌이라 그래서 버렸는데, 새 건물을 지을 때에 그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 돌들이 맞춰져야 될 기준 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시편에 노래 될 때는 이스라엘의 처지가 반영 되었습니다.
출애굽 했을 때, 출애굽 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그 당시에, 이미 주변의 모든 국가는, 노예생활 하는 애굽은 물론이려니와 주변의 모든 국가들, 가나안 땅의 모든 국가들은 이미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있었던 조직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조직의 체계가 아직도 국가를 이룰만한 체계가 되지 못하고 광야를 떠도는 부락민의 신세에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의 중심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당신이 임재 하는 처소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편 118편에서 22절의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다윗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통치력이 온 이스라엘의 조직을 관장하고 있을 그 때에,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이 사울이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직체 안에서 섞여 있을 수가 없고, 자기의 터전을 마련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블레셋 땅까지 쫓겨 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선민의 중심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형편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려진 돌이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2012년을 새로 맞았습니다마는, 주전 주후 세상의 년 월 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재정비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이 도저히 그 유대사회나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가치체계와 신념체계 안에서 거스르고 부딪쳐서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는데, 그 분께서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신앙 생활하는 개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제식훈련 때의 고문관의 이야기를 좀 빌어서, 예수님께서 버려진 돌이 되었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창조되어져 가는 조직과 사회 속에서 머릿돌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문관이 하나 끼여 있어요.
천 명이 제식훈련을 하는데, 천 명의 움직임을 다 방해를 해버립니다.
제식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돼있어서, 한 나라가 자치주로 구성이 되어 한쪽 자치주가 좀 형편없어도 다른 게 멀쩡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망가져 버리면 제식훈련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좌향좌 할 때 우향우 하고, 우향우 하면 좌향좌 하고, 뒤로돌아 하면 앞으로 오고, 앞으로 가 하면 뒤로 돌아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열외를 시켰습니다, 그 고문관을.
도저히 그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거슬리고 부딪쳐서 열외를 시켰는데 한쪽 저~쪽 귀퉁이에서 혼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구령에 따라서.
조교가 구령을 내릴 때마다 '좌향~좌'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좌향좌 할 때 혼자 우향우 하고, 우향우 하면 혼자 좌향좌 하고, 앞으로 가 하면 뒤로 가고 있고, 혼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혼자 그러고 있는 고문관을 가만히 관측을 해 보니까, 그냥 제 멋대로 파악이 안 되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향우 좌향좌가 분별이 안 되서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999명과 부딪치는데, 999명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원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조교가 좌향~좌 할 때 999명은 자기 입장에서 좌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문관이 부딪쳤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조교가 구령을 좌향~좌 할 때 언제나 이 고문관은 조교의 입장에서 좌향좌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교가 우향우 하면 모든 999명은 자기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움직이는데 이 고문관은 조교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이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999명과 부딪쳤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부딪칩니까, 유대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교가 구령을 내리듯이 말씀을 주셨어요.
좌향좌 우향우 말씀을 구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든 선민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령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좋아하는 풍요와 다산이라는 가치를 따라서 이 땅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999명의 군인들처럼.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그 사회 천 명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구령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땅의 999명의 선민들은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 다른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받아 들였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에 계시는, 천국에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복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셨던 겁니다.

모든 말씀, 모든 가치와 모든 신념체계와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최고의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당신 앞에서 있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고 당신과 영원히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것이고,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늘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순간 연결되어 살고 있는 것이 복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곳의 주인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오래 사는 게 좋고, 성공이 좋고, 인기가 좋고, 명예가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낮 지푸라기에 불과할 정도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서 그 고문관이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원칙을 발견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였는가를 보게 합니다.
마치 스테반이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는 것처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하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셨던 그 모든 행동들이 부딪치고 거슬렸던 것이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굼떠서, 이상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만 보여 질 수 있는 하늘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었구나.'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하늘만 보면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면서 걷는 사람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만 보면서 걷는 사람들은 땅에서 돌부리가 있으면 피해 갑니다, 땅에서 강이 나타나면 배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늘만 보고 가는 사람은 물위를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돌부리 위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고문관이 그런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원칙에 따른 패턴인 것을 보면서, 군인들이 하나씩 둘씩 붙어서 999명중에 많은 군인들, 한 500명이 그

쪽으로 붙어서 그 고문관을 기준으로, 고문관이 좌향좌 하면 나도 좌향좌 하고 고문관이 우향우 나도 우향우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교회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예수님 당시의 선민들의 사회인 것처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고문관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젠 그 분과 부딪치는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또 부딪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지금 보면서 설교하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찾기가 쉽지 않아졌으니까.
전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 위에서의 위로, 이 땅 위에서의 성공, 이 땅 위에서의 형통을 부르짖고 있으니까 부딪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방세계가 되어 버렸으니까, 교회 안이 이방세계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 옛날 선민들이 구약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부딪쳐야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나 혼자만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식과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다~, 기쁘고 슬픈 이유가 다 똑같아요.
직장에서 나 혼자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승진을 좋아하고 있을 때, 나는 천국 때문에 혼자 웃고 있어서 승진 못 되도 웃고 있고, 감봉이 되도 웃고 있고, 회사가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웃고 있어서 그게 부딪쳐야 되는데 이런 부딪침이 없어요.
회사에서 웃을 때 나도 웃고, 회사에서 울 때 나도 울고, 돈이 있어서 기쁘면 나도 기쁘고, 돈이 없어서 슬플 때 나도 슬프고 똑 같아요 똑같아.
부딪침이 없어요, 부딪침이.

부딪침이 없는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처음 단계에서 고문관이십니다.
부딪쳐야 되고 거슬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울고 웃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울고 웃어야 됩니다.
나 혼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는 조직마다 내가 가는 단체마다 내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어떤 부딪침이 있더라도 쫓겨나더라도 어떤 험난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 이 길을 계속 갈 때에 가정이 나를 기준으로 재정비가 되게 됩니다.
조그마한 회사가 재정비가 되고, 학교가 재정비 되고, 내 친구와 만남에서 친구가 나를 따라오게 되고, 내가 기준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 때문에 웃는 이 기쁨의 이유가 기준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리라' 이거는 심판만을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거슬림과 부딪침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삶에 부딪쳐서 깨어져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좌향좌 우향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사건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이고 깨어져 버리는 것이고 부서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맞추어진 사람으로 재정비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십자가 사건이지요.

여러분, 거슬리고 부딪치는 고문관인 것을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웃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슬픔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그 초보단계의 길에도 접어들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군대에서 제식훈련 때의 고문관처럼, 혼자 외롭게 부딪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이 발견되어야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여지고 보내어진 사회와 조직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과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발견 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철

저하게 삶에서 적용하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신념체계들에 대해서 죽었음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므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나의 모습이 옆으로 옆으로 번져나가는 기준의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